

알터에고 [Alter Ego]

성 민 (2010년 제6회 5·18문학상 수상작)

오늘도 ‘알터에고’는 보이지 않았다. 예시장으로 들어온 마필관리사들 중에 사내의 모습이 보였지만 사내가 고삐를 쥐고 있는 말은 알터에고가 아니었다. 먼 곳을 바라보던 녀석의 두 눈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다. 깊고 투명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눈은 사내의 이마에 있는 상처를 떠오르게 했다.

탕!

경주 시작을 알리는 총소리가 울렸다. 게이트가 열리자 열두 마리의 경주마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기수를 태운 말들이 획 획 바람을 가르며 아득한 주로를 달려갔다. 우우우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오월이건만 날씨가 을씨년스럽고 황량했다. 황사는 모든 걸 뒤덮고 있었다. 경주로 뒤편을 병풍처럼 둘러싼 산의 능선은 물론, 실시간으로 변하는 대형 전광판의 숫자와 경주마의 마번(馬番)까지 모든 걸 집어삼켰다가 다시 흐릿하게 모습을 토해내곤 했다. 어디선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무덤처럼 보이는 경주로 뒤편의 산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했고 그의 몸 안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했다. 짐승의 신음처럼 기묘한 울음소리가 그의 귓전을 떠돌았다.

3번마 ‘하늘의 빛’이 경주로 맨 앞을 질주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뒤를 1번마 ‘미드필드’가 추격하고 있었다. 기수들이 말의 속력을 내기 위해 채찍을 휘둘렀다. 1번마가 거의 1마신 차이로 3번마를 앞서서 달리자 선두를 놓치지 않으려는 3번마 ‘하늘의 빛’이 그 뒤를 바짝 따라붙으며 달려갔다. 관람대의 사람들이 흥분에 휩싸여갔다. 선행마들의 말발굽에서 튕겨 나오는 모래를 뒤집어쓰면서 추입마들이 무서운 속도로 그 뒤를 추격했다. 거친 황사로 뿌옇게 앞이 가려진 상태에서 말발굽소리만 요란하게 경주로 바닥을 울리며 들려왔다. 전광판 위에서 춤추듯 점멸하던 숫자들이 사방으로 번지면서 퍼져나가더니 갑자기 수많은 나비가 되어 날아왔다. 허공으로 빨려 들 것처럼 날갯짓을 하던 나비들이 그의 앞에서 툭, 아래로 떨어졌다. 나비의 등엔 편이 꽃혀 있었다. 예리한 흥기가 그의 등을 찌르고 들어오는 것처럼 통증이 느껴졌다. 그는 머리를 뒤흔들며 주위를 바라보았다. 나비는 보이지 않았다. 말들이 다시 한 무더기로 뭉쳐진 채 모습을 드러냈다. 추입마의 뒷발에 선행마의 앞발이 얹혀드는 듯 하더니

말들이 동시에 몸을 비틀거렸다. 기수들이 공중으로 높이 치솟았다가는 가까스로 다시 고삐를 잡고 질주했다. 착순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말들이 동시에 결승선을 향해 달려왔다.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다. 흥분에 휩싸인 군중들이 서로 자기가 배팅한 말이 일등이라며 외치고 있을 때, 전광판 위로 결승점을 향해 질주하는 말들이 느린 화면으로 재생되었다. 착순을 판정하기 위해 설치된 고속착순 카메라는 달려오는 말들의 차이를 1/100초까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했다. 뒤늦게 추격해온 1번마 미드필드가 3번마와 한 코 차도 안 되는 차이로 앞서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었다.

손에 쥔 마권을 구기며 그는 터벅터벅 관람대를 내려갔다. 속이 부대끼며 허기가 저오기 시작했다. 그는 매점을 향해 걸었다. 마른 빵을 사서 간단히 끼니를 때우다 보니 생목이 올라왔다. 주머니에서 소주를 꺼내 입안으로 들이붓자 밤새 뒤척이다가 아침까지 거른 위장이 요동치며 찌르르 아픔이 느껴졌다. 그는 먹던 빵을 가방에 구겨 넣고 경기장 트랙 안쪽 공원으로 향했다. 관람대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가족 단위 소풍객들과 연인들이 눈에 띄었다. 잔디 위에 돛자리를 깔고 옹기종기 모여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 사람들과 성장을 한 채 서로 손을 잡고 걷는 젊은 남녀의 모습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런 모습을 마주쳐도 이제 그는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다. 어느새 오십이었다. 군 제대 후 오랫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그가 요양원을 드나들다가 마지막으로 그곳을 나왔을 때 그의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그를 보며 가슴앓이를 하던 어머니는 이미 숨졌고 그의 집 역시 오랜 병치레로 날아갔다. 도로변의 잡초를 뽑는 공공근로를 거쳐 새벽마다 인력시장에 나가 일자리를 알아보았지만 몸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번번이 퇴짜를 받았다. 어느 날 그는 일자리를 얻지 못한 동료들과 어울려 경마장에 갔다. 그때 그는 수많은 인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당에서 과천 행 버스를 타고 들어가는 길은 자동차의 행렬로 꽉 차 있었고 경마장 입구는 마치 천국이라도 되는 양 세상 사람들이 모두 몰려든 것처럼 붐볐다. 주변이 탁 트인 그곳에서 그는 모처럼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지막 직선 주로가 끝나면 사람들은 전광판의 배당을 보며 채재를 부르기도 하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그 역시 그랬다. 바람에 갈기를 날리며 질주하는 ‘알테에고’를 보았을 때 답답했던 가슴이 확 뚫리며 등의 통증이 사라졌다. 그날 그는 이만 원 어치 마권을 샀고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이백만원에 가까운 거금을 벌어들였다. 알테에고에게 배팅한 마권이 적중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그 후로 그는 늘 이곳을 찾아왔다. 그러나 처음과 같은 횡재는 다시 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줄곧 이곳을 찾았다. 꼭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주로를 따라 질주하는 말을 보고 있으면 마치 자신이 앞으로 달려가는 것 같았다. 그러다보면 그가 낯선 곳에, 지금 여기와는 전혀 다른 곳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장외객석으로 올라가 실내를 둘러보았다. 뽕연 담배연기가 가득 고여 있는 곳에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 다음 경기의 선전을 기대하며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출처가 불확실한 온갖 소문들이 난무했다. 그곳은 우승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미리 정보를 캐내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또다시 음악이 흘러나왔다. 다음 경기에 등장하는 출주마들이 폐쇄회화면을 통해 소개되고 있었다. 여전히 알테에고는 보이지 않았다. 아직 부상이 회복되지 못한 탓일까. 벌써 몇 달째 녀석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혹 진입악벽으로 인해 퇴출된 건 아닐까? 언젠가 발주대 앞에서 번번이 진입을 거부하는 녀석의 등 위에 사정없이 채찍이 내리친 적이 있었다. 그날 채찍을 피해 발주기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던 녀석이 갑자기 주로의 중반쯤에서 다리가 꺾이며 주저앉았다. 관람대 여기저기서 왜 하필 자기가 짝은 말이 넘어지냐며 욕설이 터져 나왔다. 그 역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알테에고는 그가 배팅한 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다리를 절뚝이며 끄끙대는 모습을 본 순간, 고통이 그의 가슴을 찌르며 전해졌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는데도 녀석의 눈에 가득 고여 있는 눈물이 그의 시야로 들어왔다. 어디서 본 것일까.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는 언젠가 그런 눈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 눈빛이 그림자처럼 그의 주위를 배회했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우면 어두운 허공을 어슬렁거리며 나타나 그를 쳐다보았고, 눈을 감으면 몽롱하게 피어나는 꿈처럼 그의 의식을 두드렸다. 그럴 때면 뿌옇게 안개가 끼어있는 듯한 그의 머리에 찰칵 불이 들어오며 무엇인가 떠오르다가는 다시 사라졌다.

진입악벽이 있기는 했지만 알테에고는 뛰어난 경주마였다. 앞 몸집이 발달하여 가슴이 넓고 무릎 아래 관 부분과 긴 앞다리가 균형을 이루며 항상 일이작을 다투는 명마였다. 다른 서러브렛(through bred)종처럼 알테에고 역시 경주를 위해 철저히 개량된 품종이었다. 초원에서 자유롭게 풀을 뜯으며 자라나던 말들은 이곳으로 팔려와 경주용으로 길러지면서 매일 주로를 달리고 출전하고 입상을 해야 했다. 경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들은 거세가

되기도 했고 눈 주위에 가리개를 착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없이 사라지곤 했다. 경마장에 있는 천 사백 마리 경주마 중 해마다 이백 마리 정도가 퇴사했다. 공식적으로 일 년간 오착 안에 든 적이 없으면 경주부적격마로 판정되어 암말은 번식용으로, 수말은 승용이나 교육마로, 또 일부분은 폐사되거나 말고기로 팔려나갔다. 경주마 한 마리쯤 죽어나가는 것은 경마장에선 아무것도 아니었다. 경마장에 모여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번 빠져들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절대 그만둘 수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다. 마권을 사기 위해 끝도 없이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 대열에 합류한 그 역시 가슴이 설레었다. 열기에 사로잡혀 무엇인가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껌데기뿐인 자신이 아직은 살아있다는 생각과 함께 어떤 의지가 솟구쳤다. 하지만 술에 취한 채 아무 생각 없이 장내를 떠도는 사체를 끌어 쓴 게 화근이었다.

오월 말일까지야. 그때도 여기면 네 몸뚱이를 갈아버리겠어. 독사처럼 눈을 부라리던 사채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조금만 더 상환기간을 늦춰달라고 요구하자 사채꾼은 다짜고짜 하얀 종이를 내밀었다. 신체포기각서였다.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내 몸을 마음대로 해도 좋으며 장기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일이 바로 이달 말까지였고 오늘은 경마가 열리는 오월의 마지막 마요일이었다.

굵은 모래알갱이가 섞인 바람이 그의 얼굴로 와서 부딪혔다. 흠칫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자 황사로 뒤덮인 뿌연 하늘이 그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눈 안에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버석거렸다. 눈만 그런 게 아니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모래가 와르르 쏟아져 나올 것처럼 온 몸이 버석거렸다. 망각 속에서 벌써 삼십여 년의 시간이 지나갔다. 그에게 기억이란 모래처럼 버석거리며 알알이 흩어져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그것은 그가 견디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인지도 몰랐다. 때때로 그는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에 놀라며 거울을 들여다보곤 했다. 그러면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반쯤 입이 벌어진 남자가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초점을 잃은 눈동자는 멍하니 허공을 향해 있었고 마권을 쥐고 있는 손은 수전증환자처럼 떨리듯 움직였다. 무엇인가가 집요하게 그를 괴롭혔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때로 조각난 퍼즐처럼 낯선 장면들이 떠오르곤 했다. 낮은 담장을 따라 만들어진 화단에는 꽃이 피어있었고 나비가 날아다녔다. 한 소년이 나비를 잡아 양 날개 사이의 몸통에 핀을 꽂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여름 방학이 끝나면 소년은 나비의 표본을 상자에 담아 학교에 가져갔다. 선생님은 소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을 했다. 그 소년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그리고 대학에 진학했던 과정은 꿈결처럼 아득하기만 하다. 그 후 소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는 지금도 확신할 수가 없다. 누군가 총을 들고 자신을 쫓아오는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예리한 핀으로 등이 찢리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알맹이가 쑥 빠져나가버린 것 같은 그를 어머니는 울면서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선 끊임없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그의 증세는 별다른 차도가 없었다.

세월이 흘러 다소 증세가 완화되었을 때 그는 동네에 있는 작은 출력소에 취직을 했다. 그 해 먼 친척의 소개로 결혼을 했고 이듬해 아이를 낳았다. 그의 어머니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마당에 있던 꽃들이 다시 피어나는 듯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복사기 앞에 서있다 보면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열기에 머릿속이 이글거렸고 오후가 되면 어김없이 머리가 아파왔다. 그는 참을 수 없는 두통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때로 폭발하듯 분노가 일었다. 그럴 때면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난폭해졌다. 어느 날 네 살 난 아들이 총을 쏘며 노는 걸 보았을 때 그의 머릿속이 갑자기 용광로처럼 끓어올랐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아들의 온몸이 멍투성으로 변해있었다. 그날 이후 그의 오른 손, 특히 두 번째 손가락이 심하게 저리며 무엇인가를 세게 누르며 잡아당긴 기억이 그를 사로잡았다. 한동안 나아진 듯했던 등의 통증이 다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세로토닌 재흡수 차단제나 항불안제를 투여 받았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다. 그의 머리를 짓누르는 강박과 환각은 결국 퇴사와 이혼으로 그를 내몰았다.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의 집 마당에 피어있던 꽃들이 다시 시들어갔다.

경주가 끝났는지 사람들이 우르르 관람대를 빠져나갔다. 환호와 욕설이 그곳을 휩쓸고 지나갔다. 휴지가 된 마권들이 어지럽게 바람에 날리며 돌아다녔고 바닥에는 담배꽂초와 쓰레기들이 널려있었다. 이분 남짓한 경주가 끝날 때마다 그곳은 침략자에 의해 난도질당한 땅처럼 더럽혀졌다. 그는 술병을 든 채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걸었다. 경기장 트랙 오른쪽으로 나있는 곡선주로를 지나 동물병원 쪽으로 가면 마사(馬舍)가 있었다. 경주가 없을 때면

그는 경기장 주변을 걸어 다니며 배회하곤 했다. 그가 술에 취해 마사를 기웃거릴 때에도 사내는 다른 마필관리사들과 달리 그를 경계하지도, 내치지도 않았다. 사내는 하루 종일 시간에 맞춰 먹이를 주고 배설물을 치우며 알테에고를 돌보았다. 언젠가 날이 몹시 더웠을 때 알테에고의 등에 찬 물을 끼얹으며 더위를 식혀주던 사내의 얼굴에서 뚝 뚝 땀방울이 떨어졌다. 그 모습을 보자 어릴 적 등목을 해주던 어머니가 떠올라 그는 덩석 주머니에서 수건을 꺼내 사내에게 건넸다. 때가 꼬질꼬질 끼어있는 수건을 받아들고도 사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땀을 닦았다. 그는 물끄러미 알테에고를 바라보았다. 깊고 어두운 녀석의 눈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쳤다. 마음에 들어요? 사내가 다가오며 물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사내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알테에고는 또 다른 나(alter ego)라는 뜻이요. 그만큼 절친한 친구란 뜻이지. 그러니 당신과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요. 사내가 땀을 닦은 수건을 그에게 건네며 말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사내의 이마에 있는 흉터를 보았다. 탄피가 박혀있는 것처럼 돌출된 부위에는 오래전에 파열된 흔적이 보였다. 자기도 모르게 뚫어지게 상처를 쳐다보는 그에게 사내가 씩 웃으며 말했다. 오래전 일이요. 하마터면 죽을 뻔 했지.

또다시 쭈셔오는 등을 움츠리며 그는 앞으로 걸어갔다. 인근의 화훼마을로 이어지는 마사의 꼬트머리에 알테에고의 마방(馬房)이 있었다. 질푸른 갈기를 날리며 주로를 질주하던 녀석의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알테에고가 한 번만 제대로 뛰어준다면 사채꾼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알테에고의 마방을 향해 걸어갔다. 그곳에 가면 예전처럼 녀석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앞을 향해 걸어가던 그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다. 마방은 텅 비어있었다. 온몸에 힘이 빠진 사람처럼 그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자리에 서 있었다. 어디선가 사채꾼이 튀어나와 목에 획 칼을 들이댈 것만 같았다. 그는 술병을 꺼내 미친 듯이 입 안으로 술을 들이부었다. 독사처럼 눈을 부라리던 놈이 그의 몸을 휘감으며 달려드는 듯했다. 하릴없이 그는 갔던 길을 되돌아 나와 경기장으로 향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보였다.

경주 시작 이십분 전을 알리는 글씨가 다시 경기로의 대형 전광판에 떴다. 음악이 울리자 기수를 태운 말들이 예시장으로 들어왔다. 이번부터 십이 번까지 마번(馬番)에 따라 색을 달리한 기수의 모자들이 무지개처럼 나타났다가 황사에 가려 사라지곤 했다. 고삐를 손에 쥔 마필관리사들의 보조에 맞춰 등 위에 마번이 붙어있는 말들이 주로를 향해 걸어갔다. 경마해설자와 아나운서가 출주마들을 소개할 때마다 대형 모니터에 말들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무심코 그곳을 바라보던 그가 갑자기 사람들을 헤치며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다. 사내였다. 챙이 긴 모자를 쓴 탓에 사내의 이마에 있는 상처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내가 고삐를 쥐고 있는 말은 분명 알테에고였다. 순간 먼 기억 속에서 그를 바라보던 어떤 얼굴이 획 나타났다가는 사라졌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알테에고가 바람에 갈기를 날리며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먼 곳을 보는 것은 멀리 달리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는 거라요. 사내는 그렇게 말했다. 그는 주섬주섬 주머니를 뒤졌다. 하루에 한번쯤은 고배당이 떨어지게 마련이었다. 부상을 당했던 알테에고보다는 트라이엄프가 우승확률이 높겠지만, 알테에고가 제대로 뛰어주기만 한다면 훨씬 더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험부담이 높고 승률이 낮을수록 배당률이 높아지게 마련이었다. 그래야만 끝도 없이 불어나는 사채를 갚을 수 있었다. 마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다시 마권구매창구로 모여들었다. 그는 주머니를 다 털어 마권을 구입했다.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였다. 마지막 배팅이었다.

황사로 뒤덮여있던 하늘에 까만 먹구름이 몰려들었다. 갑자기 해가 사라진 것처럼 경기장 전체가 어두워졌다. 경주 시작 오 분을 남겨두고 마권구매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전광판의 숫자들이 빠르게 변해갔다. 매초마다 급격히 변해가는 배당률을 따라 사람들의 눈동자가 쫓기듯 움직였다. 어느 말에 배팅을 해야 할지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 예상지와 전광판과 모니터를 번갈아보며 분주히 움직였다. 경주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파란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다. 주먹을 꼭 쥔 그의 손에 축축하게 땀이 배어나왔다.

탕!

경주시작을 알리는 총소리가 울렸다. 게이트가 열리자마자 경주마들의, 말발굽소리가 산하를 유린하듯 요란하게 들려왔다. 8번마 트라이엄프가 3번, 11번의 선행마를 이끌며 선두로 달리는 모습이 클로즈업되어 비쳤다. 8, 7, 4, 3, 32, 325, …… 배당판의 숫자들이 어지럽게 그의 머릿속을 난타했다. 아우성을 치며 불어오는 바람이 경주로 바닥에 깔려있는 모래를 휘저으며 그의 몸을 휘감았다. 그의 귓전으로 거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뽕연 모래들이 마치 최루탄 연기처럼 그의 시야를 가렸다.

특, 그의 머리 위로 굵은 빗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우뢰같은 천둥소리와 함께 ‘돌격! 앞으로!’ 라는 명령이 긴 세월을 뚫고 그의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말발굽소리가 들려왔다. 갈기를 휘날리며 앞을 다투어 질주하는 말들을 보자 그의 다리가 경주마의 다리처럼 앞을 향해 내지르는 것 같았다. 그는 다리에 짹, 힘을 주며 버티고 서있었다. 말의 격한 울음소리가 마치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처럼 들렸다.

천둥과 폭우에도 아랑곳없이 사람들은 질주하는 말들의 행로를 쫓아 눈동자를 움직였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경주로 위에 뽀얀 비안개를 만들어냈다. 관람대와 전광판이 비에 젖어 번들거렸다. 주로에 물이 피기 시작했다. 그 위를 경주마들이 허영게 물을 튀기면서 달려갔다. 알테이고가 트라이엄프의 뒤를 바짝 추격하기 시작했다. 엇갈린 기대에 사람들의 환호성과 욕설이 동시에 쏟아졌다.

곡선주로를 돌아 직선주로를 달려가는 말발굽소리가 밀물처럼 밀려오자 조금해진 사람들이 관람대를 나와 안전대 앞으로 모여들었다. 마치 적과 대치한 상태에서 잔뜩 겁을 집어먹은 채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병사들처럼, 처음엔 한 두 명이 앞으로 나서는가 싶더니 점점 그 수가 늘어났다. 그 역시 사람들의 뒤를 따랐다. 떨리는 손, 젖어있는 눈, 술에 취해 휘청이며 그는 안전대 바로 앞까지 다다랐다. 드디어 알테이고가 트라이엄프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번쩍 손을 들어 올려 환호성을 내질렀다. 비로소 사채꾼의 사슬에서 해방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결승선이 가까워지자 사람들이 괴성을 질러댔다. 기수들이 휘두르는 채찍이 총검처럼 번득었다. 그때였다. 안쪽 주로에서 트라이엄프를 반마신쯤 앞서서 달리던 알테이고가 갑자기 온몸을 비틀며 뛰어 올랐다.

안돼!

그가 충격에 휩싸여 절망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질주하던 말들이 진로를 방해받자 제 페이스를 잃고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관중들이 웅성거렸다. 등 위에서 기수를 떨어낸 알테이고가 주로를 벗어나 경기장 바깥쪽으로 내달렸다. 낮이 나간 듯 그 광경을 바라보던 그가 안전대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돌아와, 제발!

그는 알테이고를 향해 외쳤다. 넌 경주마야. 채찍에 복종해. 그러지 않으면 누군가 네 등에 총구를 들이댈 거야. 그러니 제발 돌아와, 앞으로 달려가!

그는 계속 마음속으로 외치고 있었다. 빗물에 젖은 안전대를 올라가던 그의 발이 미끄러지며 아래로 떨어졌다. 그는 다시 일어나 위로 올라갔다. 알테이고는 계속 경주로 바깥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날개가 짓이겨진 나비들이 일제히 몸을 일으키며 다시 날갯짓을 하는 모습이 보였다. 오랜 시간 그들의 몸에 꽂혀있던 핀들이 우수수 허공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는 놀라 다시 눈을 뜨고 앞을 바라보았다.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나비처럼 알테이고가 온 힘을 다해 앞발을 치켜들고 있었다. 안전대를 넘은 그가 주로를 가로질러 알테이고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 광경을 본 사내가 그의 뒤를 쫓았다.

주로에서는 성난 말들이 질주하고 있었다. 뒤늦게 달려오던 말들이 놀라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지르는 가운데 관성에 충실한 몇몇 말들이 무참히 그를 밀치며 지나갔다. 사내가 다가와 그의 몸을 일으켰다. 환호와 욕설이 관중석에서 쏟아져 나왔다. 돌발변수로 경주를 망쳤다며 환부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마권구매창구로 몰려들었다. 안전요원이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로 다가왔다. 구급차의 사이렌소리가 요란하게 그의 귓전을 울렸다.

격렬한 통증이 그의 몸을 훑으며 지나갔다. 그는 눈을 떠 주위를 돌아보았다. 의무실 창 앞에 사내가 서 있었다. 사내의 어깨 너머 주로를 정비하는 모습이 보였다. 비는 어느새 잦아들어 있었다.

정신이 드요?

사내가 그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그가 원망하듯 사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왜 나를 구했어요?

무슨 말이요. 조금만 늦었으면 당신은 말들한테 짓밟혀버렸을 거요.

어차피 난 죽어야 할 인간이에요.

초점을 잃은 그의 눈동자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정신을 차려요. 대체 무슨 일이요?

답답한 듯 사내가 그를 다그치며 물었다.

날 그냥 내버려둬요. 술이나 좀 줘요. 술을…….

체념한 듯 그를 바라보던 사내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나라고 속이 좋은 건 아니오. 알터에고는 내가 가장 아끼던 말이었소.

더 이상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의무실 안이 환해지며 빛이 들어왔다. 절망한 듯 몸을 웅크리고 있던 그가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눈부신 햇빛이 검은 구름을 가르며 그 사이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빛을 본 적이 있소? 희망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말이오.

사내가 다시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딱 한번 빛을 본 적이 있소. 내 고향에서였소. 그때 그곳은 거리마다 시체가 넘쳐났지. 관이 모자라 긴 상자에 시체를 넣을 정도였으니까. 그래도 우린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죽음을 앞두고 한바탕 축제를 벌인 거라오.

사내의 말을 듣는 그의 얼굴에 공포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계속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끝까지 총을 잡고 있었소. 그곳을 지키고 있던 건 바로 나 같은 사람들이었소. 힘없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 그때 우린 꿈을 꾸었던 거요. 날이 밝으면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그곳에 있었던 거요. 새벽에 총성이 울렸지. 그리고 모든 건 사라졌소.

그가 몸을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상한 열기가 그의 몸을 휘감았다. 거칠게 질주하는 말발굽소리가 진압군의 군화발 소리로 변해갔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매운 연기가 가득한 캠퍼스에서 도망치듯 군에 입대한 그는 어느 날 트럭에 실려 밤새도록 남쪽으로 내려갔다. 가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니었다. 쏘고 싶어서 쏜 것도 아니었다. 시위대의 물결이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총성이 들려왔다. 중화기의 발사 소리가 천지를 뒤흔드는 듯했다. 시위대열에서 빠져나온 한 청년이 대로를 벗어나 골목으로 몸을 피했다. 그는 정신없이 청년의 뒤를 쫓아갔다. 그 골목엔 어릴 적 집에서 보았던 것처럼 낮은 담장 아래 화단이 만들어져 있었다. 올망졸망하게 피어있는 꽃들 위로 나비가 날아다녔다. 금세 사라질 것처럼 허공을 떠다니는 나비들이 봄날의 햇살 속으로 빨려들고 있었다. 그때 하늘을 향해 쏘아대는 공포탄 소리가 들렸다. 발포명령을 알리는 소리였다. 총을 들고 있는 그의 손이 떨려왔다. 뒤쫓아 온 상관이 그의 등에 총구를 들이대며 말했다. 네가 쏘지 않으면 네가 죽을 것이다! 등뼈를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다. 공포가 그의 몸을 훑으며 지나갔다. 방아쇠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총구 안으로 청년의 모습이 보였다. 청년의 주위엔 나비가 날고 있었다. 그는 나비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탕! 탕탕탕탕탕……. 한번 쏘아진 총은 멈추지 않고 계속 쏘아졌다. 허공을 날아다니던 나비들이 툭, 아래로 떨어졌다. 청년의 머리가 폭 꺾였다. 순간 그의 몸 안에서 무엇인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다. 몸통에 핀이 꽂힌 나비처럼 그의 등에 꽂혔던 상관의 총구가 그의 정신을 앗아가며 아무것도 없는 진공 속으로 몰아넣었다.

으윽. 그의 목구멍 깊은 곳에서 간헐었던 비명이 터져 나왔다.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그는 간신히 버티고 서있었다. 알터에고의 눈은 그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청년의 눈을 닮아 있었다.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가슴이 젖어들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사내의 이마에 난 상처를 보며 그가 말했다.

미안해요.

모래처럼 버석거리던 그의 마른 눈가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혹감에 사내는 잠시 그대로 서있었다.

다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 색으로 마법이 찍혀있는 말들이 미친 듯이 주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나도 저렇게 길들여져 있었어요. 총소리가 나면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는 말처럼.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으며 그가 울음을 터뜨렸다. 마침내 사내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몸을 떨며 계속 흐느끼고 있었다. 잠시 후 사내가 떨고 있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내 얼굴을 봐요. 한때 내가 절실하게 꿈을 가졌고 끝까지 물려서지 않았다는 증거요. 나도 당신처럼 죽으려고 한 적이 있었소. 모든 걸 잊고 싶었지. 하지만 난 다시 기억하기 시작했소. 바로 이 상처가 나를 살아가게 한다는 걸 말이오.

술로 채워진 그의 위장이 심하게 부대껴왔다. 그의 내장 깊숙이 박혀있던 고통들이 회오리치며 몸 밖으로 밀려나왔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토악질을 해댔다. 사내가 부드럽게 그의 등을 쓸어내렸다.

또다시 경주가 시작되는 발포음이 들렸다. 사내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녀석은 더 이상 경주에 설 수 없게 될 것이오. 어쩌면 폐사될 지도 모르지. 하지만 자기가 원한 길을 간 것이오.

그는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황사가 걷힌 파란 하늘 아래에서 다시 경주가 시작되고 있었다. 먼 길을 돌아온 자신이 이제야 출발선에 서있는 것 같았다. 기수를 태운 말들이 획 획 바람을 가르며 앞으로 달려 나갔다. 주로를 달리는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그를 쫓는 사채꾼의 발걸음처럼 그 소리가 그의 귓전으로 달려들었다. 몸 안에 있는 장기(臟器)들이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다시 공포가 밀려왔다.